



한덕수 총리,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

- 풍수해 위기경보 단계 ‘심각’ 상향 중대본 3단계 가동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위험지역 주민 사전대피 지시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3일(목) 20시 30분부로 풍수해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고, 중대본 3단계가 가동됨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 호우 대응 관련 중앙부처, 시·도, 공공기관

-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반지하주택 침수 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상황,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관리상황, 급류 휩쓸림 등으로 인한 하천변 인명피해 재발방지 대책 추진현황, 사고 우려 저수지 조치상황,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대피 준비상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 행안부는 7월 13일(목) 22시 현재 하천변 342개소, 둔치주차장 131개소를 사전 통제하고 있으며, 일시대피자 21세대 54명이 미귀가 중이라고 보고했다.
- 서울시는 침수 우려지역 거주 재해약자 대피를 위해 운영 중인 ‘동행 파트너’ 제도 운영상황, 강남역·대치역·이수역 등 인근 침수취약도로 관리계획, 침수예경보제 운영상황 등을 보고했다.

□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 총리는 “심야시간대는 산사태·지하침수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통제와 주민대피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조그만 위험이라도 있을 경우 위험지역 거주민은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하고,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 또한, “밤새 내린 많은 비로 도로통제가 확대될 경우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침수된 도로를 신속하게 원상복구하고, 대중교통 배차 간격 단축, 교통정보 실시간 안내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신강민 (044-200-2346)
	안전·환경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민수 (044-200-2348)